

기쿠치 계곡의 식물다양성

기쿠치 계곡은 식물의 다양성으로 유명하다. 4 킬로미터 계곡의 아래쪽 끝에서 위쪽 끝까지 해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에 걸쳐져 있다. 계곡의 아래쪽 끝은 해발 약 500미터, 기점은 해발 약 800미터에 위치한다. 계곡을 올라가면 식생이 상록활엽수 삼림에서 낙엽활엽수 삼림으로 서서히 변화하여, 상류 지역에서는 너도밤나무 숲이 주가 되는 삼림이 나타남을 알게 된다. 기쿠치 계곡에는 750~800 종의 식물종이 있고, 그 가운데 수목은 250~300 종이 자라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.

계곡의 하류 지역은 난대림이다. 짙은 녹색의 잎은 향기가 좋고 광택이 있으며 세 가닥의 잎맥이 특징적인 **생달나무**(*Cinnamomum yabunikkei*), 딱딱하고 질긴 가죽 같은 성질의 잎 뒷면이 흰빛을 띠는 데서 이름이 붙은 **참가시나무**(*Quercus salicina*), 3 월부터 4 월에 걸쳐 꽃잎이 없는 붉은 꽃이 무리지어 피는 **조록나무**(*Distylium racemosum*) 등이 있다. 중턱에는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의 낙엽수와 삼나무가 많다. 모미지가세 부근에는 1823 년에 다이묘(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)가 건축 자재로서 심었다는 큰 삼나무 숲이 있는데 볼만한 가치가 있다.

계곡의 산책로가 끝나는 히로카와라를 지나면 전나무와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은, 가지 끝에 적갈색의 작은 솔방울 같은 열매가 열리는 **솔송나무**(*Tsuga sieboldii*) 등의 침엽수, 그리고 톱니가 뾰뾰한 잎과 때로 ‘근육질’이라고 묘사되는, 매끄럽고 역센 줄기가 있는 서어나무의 일종인 **개서어나무**(*Carpinus tschonoskii*)라는 낙엽활엽수가 자라고 있다. 너도밤나무와 **물참나무**(*Quercus crispula*) 등의 낙엽수는 평균기온이 난대보다 꽤 낮은 산 위에서 볼 수 있다.

계류 주변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며, 계곡 내의 나뭇가지나 바위에서 20 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선명한 녹색의 커튼처럼 드리워진 **기요스미이토이끼**(*Barbella flagellifera*), 축축한 바위에서 잘 자라고 담뱃잎을 닮은 커다란 잎이 있는 **이와타바코**(*Conandron ramondioides*) 등을 산책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. 이와타바코는 여름에 열은 보라색의 별 모양 꽃이 핀다.